달라이라마 "난민 최종목표는 귀국"

유럽 순방 대중강연서 난민문제 입장 표명

박영빈 객원기자

유럽 내 난민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티베트의 정신적인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유럽난민들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9월 18일 '인디펜던트' 'AFP뉴스' '퍼스트 포스트'와 같은 외신들은 달라이라마의 입장을 일제히 보도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지난 9월 11일부터 유럽 각국을 순방중인 달라이라마는 12일 스웨덴 말뫼에서 열린 대중 강연에서 "유럽은 유럽인들의 것, 난민들은 고국에 돌아가야 한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당시 달라이라마는 현지 언론들로부터 "스스로 티베트 난민들의 지도자인 이로서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스웨덴은 2015년 유럽연합(EU)에서 인구 대비 가장 큰 규모로 난민 16만3000명을 받아들인 국가로 이날 강연이 열린 말뫼에도 수많은 이민자가 살고 있다.

이에 달라이라마는 지난 16일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열린 대중강연의 질의응답을 통해 난민문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언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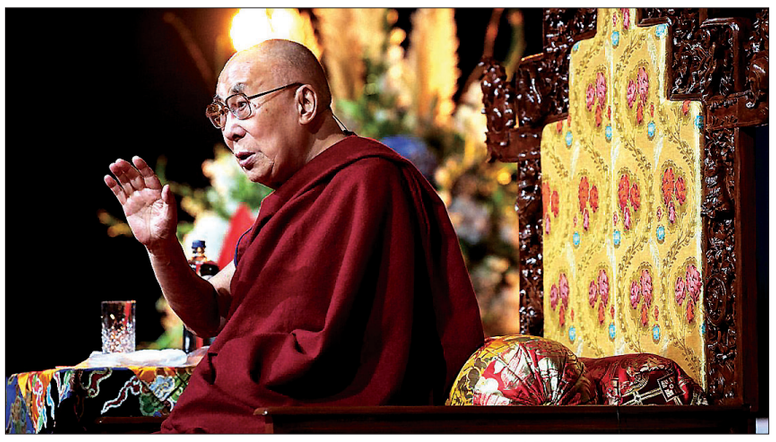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에 나선 여성은 "스웨덴에서의 발언이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고 강조한 후 "티베트 난민은 물론,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난민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들려달라"고 말했다.

이에 달라이라마는 "타국에서 망명 온 난민들을 돕는 것은 매우 훌륭한 일"이라고 운을 뗐다.

달라이라마는 "타국에서 유럽으로 망명 오는 난민들이 늘고 있다. 이에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난민들을 돕고 있다. 이는 매우 훌륭한 일"이라며 "난민들은 모두가 자신의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지만 지금 고국에서는 살상과 학대와 같은 고통이 만연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고향을 떠나온 이유"라고 설명했다.

스웨덴서 "난민 돌아가야" 발언
언론들 "부적절한 입장" 비판해
달라이라마, 문제발언 해명 나서
"기회 된다면 조국 재건 힘써야"

달라이라마는 이어 "단기적으로 난민에게는 안전하게 살 곳이 제공돼야 한다. 또 젊은이들에게는 기술교육과 훈련이, 아이들에게는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야만 한다"면서 "그러나 그 목표는 최종적으로 그들이 조국으로 돌아가 나라를 재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난민에 대한 일관된 저의 생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대중 강연하는 달라이라마. 사진출처=달라이라마 공식사무국

달라이라마는 인도에 거주하는 티베트 난민을 예로 들며, 현재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해 고국을 떠나온 사람들이 대다수임을 강조했다. 또한 각 나라의 문화와 생활양식이 있는 만큼 조국보다 나은 곳은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달라이라마는 "티베트 난민들을 인도가 받아줬다. 하지만 티베트 난민들은 조국의 상황이 바뀌면 돌아가고 싶어한다"며 "각 나라의 문화와 언어, 생활양식으로 인해 난민들이 조국에서 사는 것보다 좋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달라이라마는 오래전부터 "난민은 일시적인 지위, 언젠가는 고국에 돌아가 재건에 힘써야한다"고 강조해왔다. 실제 티베트 난민들 가운데 인도에서 교육을 받고 티베트로 귀국하는 난민들이 일정 수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티베트로 귀국한 난민들은 중국당국이 운영하는 수용소에서 단기간 정치와 사상적 재교육을 받은 후 각자의 고향으로 복귀하며, 상당수 교육업이나 관광업 등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난민에 대한 달라이라마의 발언은 이러한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달라이라마는 오는 10월 말까지 대중강연과 법문을 위해 유럽을 순방하며, 현재 스위스를 방문 중이다.

'자살충동' 암 전문의, 불교로 극복

본인 경험 통해 환자들 '영적 치료'에도 관심

2003년 어느 날, 조나단 페이지(Jonathan Page)는 컴퓨터 앞에서 작업 중이었다. 그러던 중 그는 머리에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뇌출혈이라고 생각할 만큼 순간적으로 강한 충격이었다. "생각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의자에 앉아 자세를 유지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마치 마음의 붕괴처럼 느껴졌습니다."

종양 전문의 조나단 페이지는 9월 21일(현지시간)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삶의 실의에 빠졌을 때 불교를 통해 극복한 경험을 소개했다.

조나단의 당시 뇌 충격은 심각한 질병은 아니었지만 심각한 우울과 소진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조나단은 "나는 주말도 없이 환자를 돌봤다. 하지만 정작 나는 내 자신의 웰빙(well-being)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며 "그것은 '자기 방치'가 수년간 축적된 결과였다"고 회고했다.

조나단은 정신과 치료를 받은 후 업무로 복귀했지만 본질적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고, 급기야 자살 충동까지 느꼈다.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시간이 흘러가는지 전혀 모를 정도였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일종의 번 아웃(burn-out) 증후군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조나단은 대학생 때 우연히 접했던 불교를 떠올렸다. 그는 의과대학 재학 시절 스님이 점심시간에 명상을 가르치던 기억을 더듬어, 집 근처 불교센터를 찾았다.


암 전문의인 조나단이 환자와 상담하는 모습. 사진출처=ABC뉴스

조나단은 "매일 명상을 하다 보니 자살 충동은 해소됐고 수개월 후 심오한 변화를 경험했다"며 "속도를 늦추며 내 인생을 재검토할 시간이 생겼다. 내 삶을 진지하게 바라본 것이 성인이 된 후 처음이었다"고 말했다.

이는 그의 업무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는 병원에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료 환자 수를 낮추는 대신, 각 환자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여전히 화학 및 방사선 요법이 주된 치료법이지만, 그는 환자의 영적 건강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고 했다.

특히 삶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들이 사망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돕는다는 그는 "때로는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을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명상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印, 12년만의 불교축제 '나로빠' 열려

북인도 라닥 지역서 이례적으로 2년 만에

나로빠 대사 장신구 공개 각종 문화축제 등 펼쳐져

12년마다 열리는 북인도 라닥 지역의 최대 불교축제 '나로빠 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지난 9월 20일 '뉴스 18' '더 프리 프레스' 등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북인도 잠무-카슈미르 주에 있는 라닥 지역은 고대로부터 티베트불교가 번창한 곳이다.

12년에 한 번씩 열리는 나로빠 축제는 11세기경 인도에서 활동한 '나로빠' 대사를 기리는 축제다. 나로빠 대사는 티베트인 제자였던 마르빠(1012~1097)에게 법을 전한 까닭에 티베트불교에서 중요한 조사로 여겨진다. 특히 라닥 지역은 그가 수년간 무문관 수행을 한 곳으로 전해져, 나로빠 대사에 대한 신심이 깊기로 유명한 지역이다.


나로빠 축제에서 열린 문화행사. 사진출처=나로빠 축제 공식 페이스북 계정

나로빠 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는 나로빠 대사가 사용했다고 전하는 6종의 장신구를 공개하는 자리다. 라닥의 불자들은 이 장신구를 보는 것만으로 다음 생에 해탈할 수 있다고 믿는다. 2016년 열린 공개행사에서는 약 5만 명의 불자와 일반인들이 장신구를 친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6일에 열린 개회사에서 축제운영위원장 캄딱 린뽀체(Khamtak Rinpoche) "나로빠 축제는 히말라야 지역의 풍부한 불교문화를 선보이는 자리"라고 밝히며 "12년마다의 정기적인 나로빠 축제가 지난 2016년에 열린 바 있지만, 신도들의 열성적인 청원에 의해 특별히 올해 한 번 더 개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다르멘드라 프라단(Dharmendra Pradhan) 인도 기술부 장관은 "이 행사로 히말라야 지역의 문화유산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이번 축제는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라닥의 수도인 레(Leh)에 소재한 헤미스(Hemis) 사원에서 열렸다. 축제 기간 동안에는 오전에는 예불과 법회가 사원에서 봉행되고, 오후에 야외에 설치된 특설 무대에서 문화행사가 열렸다.

특히 이번 문화행사에는 발리우드 배우들이 출연하는 패션쇼와 지역 작가들이 출연한 연극과 무용공연 등이 진행됐다. 주최 측은 "이번 축제는 젊은 예술작가들이 재능을 선보이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문화행사의 의의를 밝혔다.

박영빈 객원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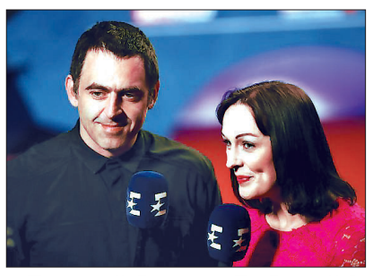
스누커 챔피언 오설리반, 3개월 단기출가

과거 "명상, 스트레스 억제 위해 훌륭" 등 불교 관심

세계 스누커(snooker) 대회에서 5번의 우승을 거머쥐었던 로니 오설리반(Ronnie O'Sullivan · 42)이 태국에서 스님들과 함께 3개월간 생활에 들어간다. 그는 한때 워낙 빠르게 플레이하는 것으로 유명해 '로켓'이란 별명이 붙은 선수다. 하지만 오설리반은 수년 동안 기자들의 머리를 들이 받거나 탈의실을 부수는 등 일탈적 행동으로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마약에 빠져 팬들에게 큰 실망을 안기기도 했다.

그랬던 그가 9월 22일(현지시간)부터 태국 스님들과 함께 생활할 계획을 발표했다고 영국 언론 '미러(Mirror)'가 이튿날 보도했다. 과거 화려한 플레이를 잃었다고 생각한 팬들을 위한 특단의 결심이라는 설명이다.

오설리반은 이전부터 스트레스 억제를 위해 명상이 좋다고 하는 등 불교에 대한 관심을 나타낸 바 있다.


태국에서 3개월 단기출가에 들어간다고 밝힌 로니 오설리반(사진 왼쪽). 사진출처=미러

오설리반은 이번 단기 출가 계획을 밝히며 "무엇이든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나는 타이거우즈가 훌륭한 이유는 불교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오설리반은 앞서 지난 9월 16일 오후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2018상하이마스터스'에서 우승하며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 원행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 본사
禪刹大本山 金井叢林 梵魚寺



방 장 지 유 큰스님
주 지 경 선
총무국장 보 운
범어사 신도회 회장 박수관 합장

매월초하루 큰스님 모시는 화엄대법회
- 화엄천일기도 -

www.beomeo.kr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어사로 250(청룡동) | 종무소 ☎ (051)508-3122

대한불교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 원행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강학과 수선, 문화와 복지공동체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본사 도솔산 선운사

주 지 경 우
사부대중 일동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250 / ☎ 063)561-1422 Http://www.seonunsa.org/